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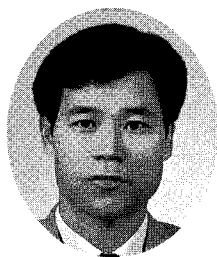


집중조명

안전농산물! 意識이 중요하다(I)

# 안전성 조사계획 및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업인의 대응**

올해 조사물량 4만건으로 지난해보다 40% 늘어  
가족 위하는 마음으로 안전사용기준 반드시 지켜야



유 평 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산물 시장의 개방에 따라 국산농산물이 수입농산물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외관상 품질이 아무리 우수해도 안전하지 못한 농산물은 소비자로부터 외면을 당하게 되므로 농산물의 안전성확보는 품질경쟁력을 높이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공급하기 위해

'96. 8월부터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농산물안전성조사는 안전성이 우려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주산단지의 재배포장, 미곡종합처리장, 저장고 등에서 시료를 수거하여 농산물에 잔류된 농약 등 유해물질의 잔류량이 농림부장관이 고시한 생산단계잔류허용기준(생산단계 농산물에 한함)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유해물질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고 잔류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부적합농산물은 생산농가 스스로 출하연기, 용도전환, 폐기도록 하는 제도이다.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은 또 우리농산물의 안전성제고를 위해 조사물량을 확대하는 등 매년 안전성조사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와 병행하여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업인 현장계도 및 농약안전사용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 올해 농산물 안전성 조사 계획 조사물량

안전성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간이속성분석을 도입하여 정밀분석과 연계하고 있다. 금년도 조사물량은 4만건(정밀분석 1만건, 속성분석 3만건)으로 지난해 2만8천6백81건보다 대폭 확대되었고 부적합농산물은

그림 1. 정밀분석 조사단계별 물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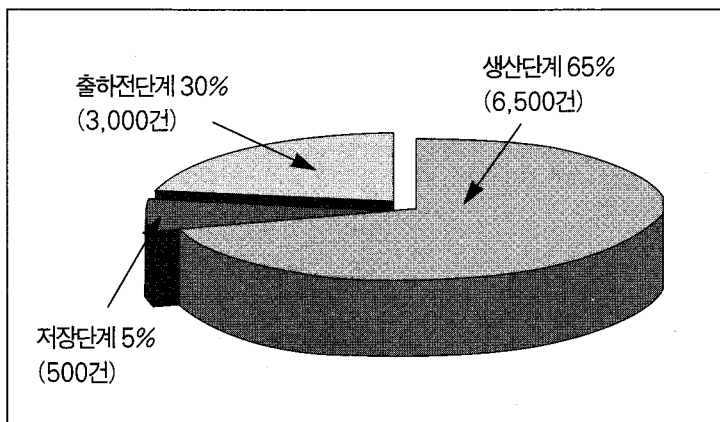


표 1. 주요 조사대상 품목

구분	곡류	채소류	과실류	기타	
계(100품목)	3	69	15	13	
조사단계별	생산·출하단계 (94품목)	찰옥수수 (1) 수박, 복수박, 메론, 오이, 가지, 애호박, 풋고추, 파리고추, 피망, 상추, 양상추, 쪽삭, 케일, 청경채, 치커리, 앤디브, 신랑초, 아욱, 근대, 양배추, 일반배추, 얼갈이배추, 고랭지배추, 일반무, 고랭지무, 알타리무, 열무, 갓, 시금치, 취나물, 미나리, 양미나리, 들깻잎, 부추, 대파, 쪽파, 생강, 당근, 콩나물, 머위, 풋완두콩, 주키니호박, 참나물, 달래, 홍고추, 마늘, 풋마늘, 양파, 도라지, 녹두나물, 겨자채, 피슬리, 돌나물, 파프리카, 비트, 더덕, 풋양배추, 냉이, 고들빼기, 두릅, 브로콜리, 비름나물, 마늘쫑, 아스파라거스 (68)	딸기, 토마토, 방울토마토, 참외, 수박, 복수박, 메론, 오이, 가지, 애호박, 풋고추, 파리고추, 피망, 상추, 양상추, 쪽삭, 케일, 청경채, 치커리, 앤디브, 신랑초, 아욱, 근대, 양배추, 일반배추, 얼갈이배추, 고랭지배추, 일반무, 고랭지무, 알타리무, 열무, 갓, 시금치, 취나물, 미나리, 양미나리, 들깻잎, 부추, 대파, 쪽파, 생강, 당근, 콩나물, 머위, 풋완두콩, 주키니호박, 참나물, 달래, 홍고추, 마늘, 풋마늘, 양파, 도라지, 녹두나물, 겨자채, 피슬리, 돌나물, 파프리카, 비트, 더덕, 풋양배추, 냉이, 고들빼기, 두릅, 브로콜리, 비름나물, 마늘쫑, 아스파라거스 (68)	사과, 배, 단감, 감귤, 금귤, 유자, 포도, 마른표고버섯, 자두, 복숭아, 생표고버섯, 참다래, 대추, 감자, 고구마, 뽕은감, 영지버섯, 매실, 버들송이버섯, 밤, 청견탄골 (15)	양송이버섯, 팽이버섯, 느타리버섯, 마른표고버섯, 생표고버섯, 감자, 고구마, 영지버섯, 버들송이버섯, 동충하초(10)
	저장단계 (16품목)	쌀, 옥수수 (2)	마늘, 양파, 마른고추, 생강(4)	사과, 배, 감귤, 유자, 단감 (5)	대두, 참깨, 명콩, 감자, 고구마(5)

사전에 시장에 출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생산단계에 조사물량을 많이 배정하고 있다. 정밀분석

조사단계별 조사물량(1만건)은 <그림 1>과 같다.

### 조사 대상품목

올해 안전성조사는 100개 품목<표 1>을 주요 조사대상 품목으로 선정하여 조사할 계획이다.

### 중점관리 품목

지난해 안전성조사 결과 부적합 비율이 높았거나 소비자의 관심이 큰 신선 채소류 등 30개 품목<표 2>에 대해 조사물량을 늘리는 등 안

표 2. 중점관리 대상품목

구 분	채 소 류(25)	과실류(2)	기 타(2)
생산·출하 단계	들깨잎, 상추, 썩갯, 신립초, 케일, 취나물, 부추, 쪽파, 근대, 시금치, 아욱, 얼갈이배추, 머위, 참나물, 미나리, 콩나물, 풋고추, 파리고추, 딸기, 오이, 열무, 치커리, 청경채, 갯, 양미나리	포도, 복숭아	느타리버섯 양송이버섯 팽이버섯

\*시·도별 안전성 조사계획 수립시 중점관리 대상품목에 조사물량 우선 배정

전성조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 생산단계 조사의 효율성 제고

올해부터는 간이속성분석을 전국 80개 농관원 전 출장소로 확대하여 3만건의 농산물에 대한 스크리닝을 실시하고 이 과정에서 부적합 우려가 높은 농산물을 찾아내어 정밀분석 과정을 거쳐 부적합품은 출하연기 등의 조치로 시장에 출하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또한 전년도에 부적합품 발생농가 또는 농약 사용이 많은 시설재배 농가 등은 우선 조사대상 농가로 선정하여 조사하고 부적합품 발생 시에는 당해 농가를 포함한 작목반원은 물론, 인근 작목반에 대해서도 농약안전사

용교육을 실시하여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출하하도록 할 계획이다.

### 농·소·정 참여 안전성 조사 실시

우리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투명한 실태조사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한 대책으로는 민간단체 및 학계, 언론계,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하여 소비자가 식생활에서 불안해하는 사항과 생산자가 안전농산물 생산에 불편해하는 사항에 대해 농·소·정이 함께 조사가 필요한 사항을 선정하고, 투명한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책을 수립, 시행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개선여부를 사후 확인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불편·

불안 사항을 해소해 나가는 등 우리농산물 안전성제고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 수출농산물 안전성 관리

시·군 및 농업기술센터, 농협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농가에서 사용할 농약의 선정 지도 및 교육을 확대하여 수입국 기준에 적합한 농산물이 생산되도록 유도하고 수출전에 안전성분석을 실시하여 농가, 수출업체에 분석결과를 통보해 줌으로써 안전성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을 해결해 주고 안전성이 확보된 농산물이 수출되도록 하여 우리농산물의 수출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 부적합 농산물의 조치 강화

안전성조사 결과 부적합농산물은 출하연기 또는 용도 전환, 폐기하도록 신속히 생산농가에 고지하되 고지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생산자는 고발 등 법규를 엄격히 적용할 계획이다.

###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 강화

안전한 농산물이 생산·공

급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이 적극 협조하여야 하므로 지난해와 같이 서울시가락시장농수산물검사소, 서울시농수산물공사의 가락시장반입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를 통보 받아 부적합품에 대해서는 생산자를 방문하여 농약안전사용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시료를 수거하여 안전성 재조사를 실시하는 등 협조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농협중앙회와 사전 협의를 통해 산지농협에서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간이속성분석의 효율성이 증대되도록 간이분석결과 부적합이 우려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정밀분석을 지원하여 부적합여부를 통보해 주는 등 적극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업인의 대응 농약 안전사용방법 준수

농약은 적용대상작물 및 병해충, 최종 사용할 때기 및 살포횟수가 정해져 있는데 이것이 농약안전사용기준이다. 농업인이 농약을 살

포할 때 이 기준만 지키게 되면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다. 농약 잔류량은 주로 농약 살포횟수와 최종 살포시기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데 잔류허용기준이 낮게 설정되어 있고 분해속도가 느린 농약이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많으므로 다음과 같이 농약을 안전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첫째, 농산물별로 적용 병해충에 적합한 농약을 선택하여 사용농도 및 사용횟수, 최종 살포일수 등 안전사용기준에 따라 살포해야 하며 과실류에 사용하는 농약을 채소류에 살포시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높다. 그러나 농도가 높고 살포량이 많다고 해서 방제 효과가 좋은 것은 아니다.

둘째, 적용병해충에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경우 번갈아 가면서 방제적기에 사용하여 병해충이 농약에 대한 내성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셋째, 농약별로 농산물의 잔류허용기준이 다르므로 가

급적 잔류허용기준이 높게 설정되어 있고 수확전 살포일수가 짧은 즉 분해가 빠른 농약을 사용해야 한다.

### 농약살포시의 자세

농업인들이 농작물에 농약을 살포할 때에는 안전성과 상품성을 다같이 중요시하여 안전성 측면에서는 나와 내 가족이 먹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농작물 별로 정하여진 농약안전사용기준을 반드시 준수하는 것이 습관화 되도록 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부적합으로 검출이 많았던 농약성분이 함유된 농약을 살포할 때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엽채류는 농약살포시 단위면적당 농약의 부착량이 많기 때문에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높다. 그러므로 농약의 선택이나 농약살포와 관련하여 궁금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농업기술센터, 농협 등 관계기관에 수시로 문의하여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농약정보**